

노사상생이 지역발전 원동력

4 대기업 노조 이레션 안된다

특하면 파업... 경쟁력 발목잡기 그만

최근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추월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외국 평가기관이 아닌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이어서 국내 경제계를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IPS)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점수가 분석대상 66개국 가운데 23위로 21위인 중국에 밀렸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이 가장 뒤진 분야는 노동부문의였다. 인건비 등 양적 경쟁력 뿐 아니라 질적 경쟁력을 합친 분석결과다.

중국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우리의 7~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아차나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 노조의 '제 밭그릇 쟁기'는 여전히 전한다. 평균임금이 5천만원에 육박하는데도 어려운 경영현실은 아

취업 장사에 신기술·신제품 개발까지 간섭 노사문화 개혁 등 상생으로 신뢰회복 나서야

랑곳없이 매년 파업을 감행, 회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온통 뒤흔들고 있다.

이같은 대기업 노조의 권한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웬만한 대기업 노조위원장만 해도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 수준인,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일부 노조의 경우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등 회사 수뇌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까지 개입, 회사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2005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의 '취업 장사'는 대

기업 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S대 교수는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반화된 노조의 경영 및 인사참여는 자칫 '뚝이 될 수도 있다'면서 "대표적인 국민기업인 P사도 노조집행부가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던 데서 알 수 있지만, 노조의 생명은 도덕성"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주·전남지역 대기업의 '춘추(春醵)'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다.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오는 6월 중순순회 회의를 위해 일주일간 총파업을 벌이고, 임단협 시гийн

7~8월께 2차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등 민주노총 산하 주력사업장들이 대거 소속돼있는 금속노조는 15만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해있어 단일노조이기는 하나,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어 올해도 대기업 사업장에는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 노조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활동의 불투명성이 제거돼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권리남용, 횡포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수원지구 '피오레' 2차 그랜드 오픈 23일 문을 연 광주 수원지구 '피오레'아파트 2차 모델하우스에는 1천여명의 실수요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대주건설은 이날 광주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한 대주하이점 갤러리에서 '피오레' 모델하우스 오픈식을 갖고 총 1천720세대에 대한 신규 분양에 들어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 강화

은행권, 인터넷 사기방지 대출신청 제한기간 연장

은행권이 인터넷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주부터 예적금 신규 가입 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취급 제한일을 변경키로 했다. 지금은 가입 후 2영업일만 지나면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통한 금융사기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또 지난 7일부터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1.0%포인트에서 연 1.3%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이나 적금 등 수신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산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작년 12월부터 최소 15일을 경과한 예적금에 대해서만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실

시하고 있다. 종전 3영업일보다 제한기간을 늘린 것으로 인터넷 금융사기의 대부분이 예적금 가입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신한은행은 예적금 신규가입후 대출 가능시점까지 경과일이 4영업일로 여타 시중은행의 2영업일보다 길지만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경과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대출금 입금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본인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과일 변경 등 안전성 강화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전략산업 종합정보망 구축

테크노파크 등 13개 기관
혁신자원 DB 하나로 통합

광주지역에 13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혁신자원 DB 통합시스템 협의회'(협의회장·광주테크노파크 남현일 원장)는 지난해 6월 공식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공동노력을 통해 광주 전략산업 종합정보망(GSIIS)을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이 시스템은 광주 전략산업인 광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디자인산업, 문화·IT산업에 대한 기업체·인력정보를 한곳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다. 현재 1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추가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조사된 정보를 DB화함으로써 3천500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지원기관에 산재해 있는 DB 정보와 각종 기업지 원정보를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요자가 필

요로 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 특히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13개 참여기관별 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한 중복투자의 최소화는 물론, 참여기관간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3개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다.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남현일), 고등과학기술연구소(소장 이종민), 광주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단장 김영집),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문환규), 광주전략산업기획단(단장 유은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주), 전자RIS사업단(단장 김기선), 전자부품연구원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강진), 한국과학기술원(원장 김태일), 한국광산업진흥회(상근회회장 전영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소장 배정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주연구센터(센터장 김봉태). /이종태기자 jilee@

광주·전남수출 고공행진

4월중 25억 5,700만달러
4개월 연속 20%대 성장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만)가 22일 발표한 '2007년 4월 무역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25억5천7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2.4% 증가했다. 올 들어 4개월 연속 20%대의 고성장을 나타냈다.

광주 수출은 8억4천2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5.0%, 전남은 17억1천500만달러로 2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반도체(45.9%), 승용차(33.2%), 병장고(31.8%)가 수출을 견인했고 전남은 합성수지(27.5%), 기타석유화학제품(36.4%), 기초유분(97.1%) 등이 호조세였다.

수입은 광주 4억400만달러, 전남 22억8천100만달러였다.

고영만 지부장은 "광주의 대 일본 수출이 3월 324%에 이어 4월에도 16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엔저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업체는 환리스크 최소화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

고 총 250만달러를 들여 학교 100개를 지어주기로 했다.

학교는 라오스 전역에 들어서며,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각 학교는 교실을 비롯, 교무실, 화장실, 책상, 칠판, 탁자, 의자 등의 기본 교육시설을 갖추게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부영, 라오스에 학교 100개 무료 기증

중견 건설업체 (주)부영이 라오스에 학교 100개를 무료 기증키로 하는 등 국내외에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부영은 지난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준근 회장과 송사왕 령사 및 라오스 부총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건립 기증식을 갖

고 총 250만달러를 들여 학교 100개를 지어주기로 했다.

학교는 라오스 전역에 들어서며,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각 학교는 교실을 비롯, 교무실, 화장실, 책상, 칠판, 탁자, 의자 등의 기본 교육시설을 갖추게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롯데슈퍼 두암점 등
3개 점포 추가 오픈

롯데슈퍼는 "지난 16일 광주와 전남·북 5개점에 이어 24일 두암·신가·일곡점 등 광주지역 3개 점포를 추가 오픈한다"고 밝혔다.

롯데슈퍼는 이들 매장을 리뉴얼 공사를 통해 인테리어와 집기, 상품진열, 매장 내 안내부착물을 변경하는 등 기존 빅마트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 호남지역 산지 직거래와 육선점이다. 각 학교는 교실을 비롯, 교무실, 화장실, 책상, 칠판, 탁자, 의자 등의 기본 교육시설을 갖추게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기업PR광고 눈길 끄네

UCC 기법 큰 호응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기업 PR 광고가 UCC(User Created Content·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기법을 사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UCC기법을 활용한 '상생경영' '환경경영' '현열운동'은 딱딱한 기업중심의 메시지나 분위기 구미 확대를 통해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조 관계자는 "UCC의 자연스러운 극대화하기 위해 동시녹음으로 '핸드 헬드 카메라'를 이용했고, 편집없이 광고를 끝까지 이어가는 '원 샷 원 컷' 촬영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모델'을 등장시켰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정의 뒷면, 일반 회사의 사무실, 이동 현열차 등 생활속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한 점도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금호아시아나의 이미지 표현에 상승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얘기다. /이종태기자 jilee@

이태리가구 전문점



이태리 디바니 DIVANI 소파를 독점수입 판매합니다.

- 등받이 각도 조절.바닥부분 리모콘으로 침대기능
- 4가지 모델과 이태리만의 칼라 30% 세일 판매
- 홍스페이스는 호남유일의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입니다.

● 1.2층 : 명품가구 ● 3~5층 : 엔틱가구 ● 지하 : 50% 세일가구

www.홍스페이스.kr
www.hongspace.k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 옆)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7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초대졸 커플매니저 0명 모집

(株)행복출발 호남지역총괄 (062) 527-3388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마우스클릭 > 90 을 치세요